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廣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정 행 권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인쇄처: (주)명방인쇄
Tel:(051)636-9477 FAX:636-9478



지난 5월6일 제일뷔페에서 열린 용마산악회 2004년 정기총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5월23일 승학산서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오전 10시 출정식

본부동창회장기 제5회 기별대항 용마등산대회가 5월23일 승학산~엄광산~구봉산 코스에서 열린다. 본부동창회 주최·용마산악회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동아대 승학캠퍼스(하단) 정문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발, 2시간50분 후 구덕산 안부에 도착하며(점심식사) 오후 1시50분 타임 레이스를 벌인다.

이어 꽃동네(14:30)~엄광산(15:30)~구봉산(16:30)~경남고 체육관 앞 농구장 골인(16:50)으로 종주를 끝낸다. 체력이 순조롭지 못한 산우들을 위해 '꽃동네~엄광산 안부~구덕공원~경남고'를 B코스로 정했는데, 만약 타임 레이스 선수들이 이 코스를 통과하면 실적이 된다. 채점은 운행(30점)·워킹(30점-타임 레이스)·복장(10점)·장비(15점)·참가인원(15점-가족 제외) 등으로 한다.

특히 타임 레이스 경우 체크 포인트(엄광산·구봉산)를 지날 때는 5~7명이 모두 모여야 하고, 엄광산 체크 시는 의무적으로 5분간 휴식해야 하며, 경기 중 달릴 때는 실적이 된다.

신임회장에 정준수 수석부회장(15회) 선임

용마산악회 정기총회·기별대회 대표자 회의



본부동창회의 용마산악회는 지난 5월6일 오후 6시30분 부산진구 범내골 제일생명 빌딩 23층 제일뷔페에서 '04년 정기총회 겸 제5차 용마등산대회(5월23일)대표자회의를 개최, 정준수 수석부회장(15회·부산대 교수·사진)을 신임

용마 17명 국회의원 당선

부산 김병호(15회) 정형근(17회) 허태열(18회) 권철현(19회) 김형오(20회)
김무성(24회) 서병수(25회) 엄호성(28회) 유기준(32회) 조경태(40회)
울산 정갑윤(23회) **경남** 박희태(11회) 김기춘(12회) 김정부(13회)
권영길(15회) **최철국**(25회) **서울** 이근식(19회)



박희태 동문 김기춘 동문

지난 4월15일 실시한 제17대 총선에서 17명의 동문이 당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내외 용마가족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양시켰다.

이번 총선 결과 국회입성의 영광을 안은 용마는 다음과 같다.

△부산=김병호(15회)·정형근(17회)·허태열(18회)·권철현(19회)·김형오(20회)·김무성(24회)·서병수(25회)·엄호성(28회)·유기준(32회)·이상 한나라당·조경태 동문(40회)·열린우리당

△울산=정갑윤 동문(23회)·한나라당

△경남=박희태(11회)·김기춘(12회)·김정부(13회)·이상 한나라당·권영길(15회)·민주노동당·최철국 동문(25회)·열린우리당

△서울=이근식 동문(19회)·열린우리당

한편 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당선 동문들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고, 앞서 출마한 동문들에게도 일일이 축전을 보내 선전을 당부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동문들은 한결같이 "용마가족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진출한 동문 17명 중 의석수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병민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산악회 집행부를 비롯한 60여명의 회원들과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 및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를 통과시켰고, 동창회장기 제5회 용마등산대



김정부 동문 김병호 동문 권영길 동문 정형근 동문 허태열 동문



권철현 동문 이근식 동문 김형오 동문 정갑윤 동문 김무성 동문



서병수 동문 최철국 동문 엄호성 동문 유기준 동문 조경태 동문

별 정당은 한나라당 13명(부산 9·울산 1·경남 3명), 열린우리당 3명(부산·경남·서울 각 1명), 민주노동당 1명(경남)이다.

제 15, 19, 25회 각 2명 진출 전국 고교 중 두 번째 의원 많아

동기회별로는 제11~40회까지며 이 가운데 제15, 19, 25회가 각 2명이었고, 제11, 12, 13, 17, 18, 20, 23, 24, 28, 32,

40회가 각 1명이다.

이는 전국 고교 중 최다 당선자를 배출한 경기고(2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특히 권영길 동문(15회)은 민노당 대표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 의정사상 첫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산의 조경태 동문은 한나라당 발에서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는 이번을 연출했다.

회 운영안과 제17,18차 정례대회를 각각 오는 9월5일(경주 단석산-827m)·11월14일(남해 망운산-785m) 개최하는 계획안 등을 승인했다. 이어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제 회장은 앞서 초대회장으로 산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동

대 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준수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마산악회는 각 동기회의 열정어린 참여로 저변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용마산악회의 결집력이 본부동창회 발전의 동력화가 되게끔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14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강주신 박병선 윤영현 류충일
박호건 이길미 정시영 노수덕 한규환 이종민

회 장 김연대

부회장

강돌이 김재도 김영식 김용호 김이길 양정우 이광언
이승오 정현구 황원규

총 무 박청홍

이 사

공철성 구자신 김영우 김우구 김화옥 강호일 김형수

김홍관 김용균 박문남 박순일 박중철 박종문 박삼현
박춘제 박용화 박현목 반미태 신현호 염상주 유정호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영준 이훈일 이호근
정상진 정삼영 정의광 진성태 조규태 최경렬 최성웅
허광진 한창수 황준성

감 사 김철언 조영봉

<직능별 모임(서클)>

경사회 회장 반미태 총무 노수덕
경조회 회장 한규환
KBC(당구모임) 회장 박병선 총무 강원수
낙석회 회장 강주신

등대회 회장 김용균
등산회 회장 김재도
의약회 회장 윤영현
1.4회 회장 박병선
보수회 회장 김의웅 총무 전재수
6.14 회장 김화옥

<지역 동기회>

재경동기회 명예회장 신준호 조규향
회장 김명치 총무 이광우
울산지역동기회 회장 강호일 총무 전부길
마산지역동기회 회장 김 관
거제지역동창회 고문 손광웅 윤용남 조규태

시평



김경희 (9회)
재경동창회고문 · (주) 용마공업 대표이사

4.15 제17대 총선에 27명의 동문들이 출마하여 한나라당 13명 · 열린우리당 3명 · 민주노동당 1명 등 모두 17명의 용마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또 어려웠던 이번 선거에서 역경을 헤치고 다시 태어나는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한 당선 동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든 동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 언제나 함께해주신 동문-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150석)가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선전, 121석을 얻었습니다. 특히 권영길 당 대표(15회)가 이끄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 제3당이 되는 도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참패했습니다.

합동유세가 사라진 이번 선거는 선거의 핵심인 정책이 실종되고 탄핵 쟁점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의 주장만 부각되었을 뿐 정작 후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체에 당선된 동문들에게 소박한 기대를 해봅니다. 스스로 교만한 줄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아닌 겸손한 선량이 되어주시길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당장에 이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시시오. 꿈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듯이 '비전이 없는 의원'이란 평가를 두려워하십시오.

결점 중에 가장 큰 결점은 '자신에게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기억해주시고.

플스토이는 젊은 시절 자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신의 일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국회의원용마들 동창회 적극 참여를

'첫 번째로 나는 우유부단하며, 두 번째로 자기기만이 강하다. 세 번째로는 성격이 몹시 급하며, 네 번째로는 거짓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는 사고방식이 혼란스럽고, 여섯 번째로는 모방정신이 강하며, 일곱 번째로는 번덕이 죽 끓듯한 남자이다, 여덟 번째로는 반성이라고는 전혀 하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결같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만 들춰낸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것 대신 부끄러운 점만 끄집어내는 데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처럼,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전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윈-윈(Win-Win)이라야 살아남습니다. 상대를 망하게 하고 내가 사는 루즈-윈(Lose-Win)은 결국 둘 다 망하는 루즈-루즈(Lose-Lose)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 없는 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개혁을 반드시 이룩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 그는 고된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괴테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쁜 역사를 잊는 자는 그 역사가 반드시 반복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갈등의 조정 기능을 상실한 정치를 회생시키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가야 할 용마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매력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고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간직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동창회와 모교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발 동창회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한 용마가 되기 위해서는 '돌맹이'와 '가시'라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돌아서 가는 현명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시고, 부디 건강하고 자랑스런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듭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프로필

구분	성명	회	지역구	정당	선수	학력 · 약력
부산	김병호	15	부산진갑	한나라	재선	고려대 정의과 졸업. 국제신문 사회부 차장 · 한국방송공사 부산 송국장 · 본부 보도본부장 · 동아방송대학장 · 당 언론대책위 위원
	정형근	17	북 · 강서갑	*	3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12회) 합격. 부산-서울-수원 지검 등 검사 · 안기부 수사국장 · 제1차장 · 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보국훈장. 저서 <국제태력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허태열	18	북 · 강서을	*	재선	성균관대 법학과 ·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영대학원 석사 · 행정고시 합격(8회). 청와대 행정관 · 경기 의정부부천시시장 · 충북도지사 · 초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권철현	19	사상	*	3선	일본 쓰쿠바대 대학원 도시사회학 박사. 연세대-동아대 교수 · 당 대변인 · 이회창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 당 부산시지부장. 동아대 공로패 등 수상. 저서 <발전이념론> <지방이여 깨어나라> 등
	김형오	20	영도	*	4선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 석사 · 경남대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비서관 · 청와대 공보과장-정무1과장 ·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 청와대 정무비서관 · 당 사무총장. 저서 <배움의 길 사랑의 길> 등
	김무성	24	남울	*	3선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삼동산업 대표 ·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 13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재정국장 · 김영삼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 내무부차관 ·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왜 김영삼이어야 하는가>.
	서병수	25	해운대 · 기장갑	*	재선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노던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우진서비스 대표 · 동부산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해운대 구청장 · 200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시민단체)
	임호성	28	사하갑	*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고시(22회)-사법시험(28회) 합격. 해운대경찰서 수사과장 · 서울북부서 수사-형사과장 · 경찰청 특수과장 · 변호사 개업 (서울 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대통령표창 등
	유기준	32	서구	*	초선	서울대 법학과 · 미국 뉴욕대 법학과 석사. 사법시험(25회) 합격 후 군법무관-변호사 개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해상변호사 1세대 · 당 인권위원 · 삼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부산대-해양대 겸임교수. 해상보험관리 등 연구 논문 다수
	조경태	40	사하을	열린우리	*	부산대 토목공학 박사 · 현재 부산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자문위원 · 대대포지하철 건설 추진위원장 · 당 부산시지부 청년위원장
울산	정갑윤	23	중구	한나라	재선	울산대 산업대학원 석사. 울산대 초대 학생회장 · 경남도의원 · 울산대총동회장 · 2002년 울산 중구 재보선에 출마 후 당선
경남	박희태	11	남해 · 하동	*	5선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138회)사법과 합격. 청주지검 등 검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춘천-대전-부산지검장 · 부산고검장 · 변호사 개업 · 법무부장관 · 당 대표권한대행-대표최고위원
	김기춘	12	거제	*	3선	서울대 대학원 박사. 고등고시(12회)사법과 합격 후 광주-부산-서울지검 검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총장 · 법무부장관. 황조근정훈장-보국훈장-5.16민족상 (안보부문) 등. 저서 <형법개정식본> 등
	김정부	13	마산갑	*	재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청와대 경제비서관 · 국제청 재산세국장 · 중부지방청장 · 경남대 초빙교수 · 조세개혁추진위원장. 당 경제대책특별위원. 저서 <공적자금인가 공짜자금인가> 등
	권영길	15	창원을	민주노동	초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대한일보 기자 · 서울신문 파리 특파원 · 1~3대 전국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 제15대 대통령 후보 (국민승리21) · 제16대 대통령 (민노당)후보. 제1회 정의평화상 (천주교 들빛회) 등
	최철국	25	김해을	열린우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28회) 합격.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 대통령비서실 의전국장 · 경남도 문화관광국장 · 새천년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서울	이근식	19	송파병	*	*	서울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10회) 합격 · 경제기획원 사무관 · 거제군수 · 청와대 민정서기관 · 장송포시장-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의전비서관 · 경남도 부지사 · 청와대 일반행정비서관 · 내무부차관 · 행정부장관. 대통령표창장 · 훈조-청조근정훈장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 · 직능회 · 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제6회 '간발의 3mm차'로 우승 행운

본부동창회장기 제15회 기별 대항남시대회에서 제6회동기회가 '간발의 3mm차'로 종합우승의 행운을 누렸다.

지난 5월 2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지에서 경수회 주관으로 열린 본부회장기 제15회 기별대항남시대회에서 27개 팀이 숨씨를 겨룬 끝에 제6회 동기회가 총체 480mm를 넘어 막강한 제22회 B팀을 3mm차로 따돌리고 우승, 감격을 누렸다.

이날 오전 6시 대회장 근처 정수예인촌 운동장(대회본부)에서 진경일 경수회장(20회·영신 대표이사)의 주재로 출조

동창회장기 기별남시대회 제22회 B팀 애석한 준우승

식을 거행한 후 팀별로 지정 포인트에서 기량을 겨뤘다.

오후 2시 계속 후 열린 시상식에서 진경일 경수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꼭두새벽에 부산을 떠나 이곳에 와서 동기회의 명예를 위해 기량을 발휘한 선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해가 거듭할수록 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양심적 대회로 이끌어가는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 종합우승 : 제6회(선수 : 최병수 윤병룡 최상해 - 480mm·회장기 및 회장배 - 부상)
- △ 1위 : 제22회 B(선수 : 김광무 전민수 하성일 - 477mm·은성 실스타사장배 - 부상)
- △ 2위 : 제17회(선수 : 강우훈 박해두 신정아 - 460mm·경수회장배 - 부상)
- △ 3위 : 제22회 A(선수 : 김성재 김정세 손용섭 - 455mm)
- △ 4위 : 제18회(홍창우 신민섭 박귀환 - 300mm)
- △ 감투상 : 제22회 C(선수 :

- 김완식 박건수 김일준 - 300mm)
- △ 장려상 : 제13회(선수 : 백명조 박양은 정은섭)
- △ 모범상 : 제34회(선수 : 옥재명 박창표 오주흔)
- △ 자연보호상 : 제41회(선수 : 여근섭 서상목 성찬기)
- △ 행운상 : 제16회(선수 : 서고명 이부홍 장공상)·제19회 B(선수 : 김영진 백영철 최화익)·제30회(선수 : 임영수 서간태 감재수)·제32회 B(선수 : 김태웅 박종우 윤종걸)
- △ 개인행운상 : 윤민근(19회) 김홍진(21회) 김병기(39회)
- △ 공로상 : 제33회(선수 : 최웅남 김종현 지창근)
- ※ 제18회는 심사 결과 제22회 C와 공동 5위였으나 선배기 우선원칙에 따라 단독 5위로 결정되었음.

제9회 새 회장 박종근



제9회동기회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17층 뷔페월드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4정기총회를 개최, 박종근 동문(사진)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동대 부회장이 주재(전국조 회장 임원 중)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 등을 승인했고, 임원 개선에서 회장에 이어 부회장에 한동대 노도현 박화철 원중회 윤종두, 감사에 신도수 임종조, 총무에 조규양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14회 김영대 회장 유임



제14회동기회는 지난 4월23일 부산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홀에서 '04년정기총회를 열어 김영대 회장(인천항도선사회 도선사·사진)을 유임했다.

동문 50여명이 모인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을 개선했다(사회·박청홍 총무).

제15회 박찬호 회장 유임



제15회동기회는 지난 4월19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석류홀에서 '04 정기총회를 개최, 박찬호 회장(신승원테크 대표이사·사진)을 유임시켰다.

박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강무상·김정환 감사 유임안과 회장단 및 총무진 재신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사회·조일랑 총무).

제32회 새 회장 김대식



제32회동기회는 지난 4월8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프리엔셜빌딩 22층 뷔페홀에서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홍 회장 주재로 '04정기총회를 개최, 김대식 동문(동서대 학생처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부산신우회(가족동문 모임)가 평소 교회에서 치르던 정례회를 비회원 및 가족 초청 산행대회로 바꿔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열린 복음'을 가속화시키기로 해 화제이다.

신우회는 오는 6월5일 금정산 동문·남문 코스에서 회원·가족은 물론 비회원·가족 초청 산행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요셉 회장(15회·동서교회 장로·리틀캠퍼스 이사장)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금정산 동문 주위에서, 또는 범어사-북문을 거쳐 동문에 집결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는 동문은 이날 오후 2시쯤 지하철 온천장역에서 출발하는 203번 산성행 직행버스를

금정산서 '열린 복음' 위한 산행대회 신우회, 6월5일 동문~남문에서 친교·믿음 승화

이용해 동문으로 오거나 △오후 4시까지 남문 옆 수박밭으로 바로 모이면 된다. 불편한 동문·가족을 위해 남문 입구까지 셔틀 차량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예배(4시간30분)·식사(5시)·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성도들은 우정을 통해 믿음을 더욱 튼튼히 쌓고, 비성도들은 친교를 통해 믿음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 연락 : 박재민 총무(21회·019-508-8594)·각 동기회별 대의원, 회비 : 정회원 각 1만원 (비회원 무료).

청군 역전승 패권 제26회 4월 테니스대회

제26회동기회 4월 테니스대회가 지난 4월24일 오후 4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대성산업 테니스장에서 열려 용호상박의 결승전에서 청군(선수 이규용·김상현)이 백군(선수 신재호·강태중)을 3-2로 눌러 패권을 쟁취했다.

이날 대회는 복식 5세트(3승선제)로 기량을 겨뤘는데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 청군이 2-2의 균형을 깨고 승리했다.

로프에 매달려 환상의 풍광 즐겨 제33회 사랑도~옥녀봉 종주기 김법영

지난 4월25일 당일치기 사랑도 지리산~옥녀봉 종주는 '환상의 동반'이었다.

제33회동기회 제65차 산행단은 동문·가족 20여명. 이날 오전 6시 정각 부산진역 앞을 빠져나간 관광버스는 2시간40분간 달려 일행을 선착장에 내려놓았고, 우리는 건너편 금평항에 닿아(09:50) 산행 들머리 돈지까지 마을버스로 이동했다.

'안전산행...건강산행...행복산행...'을 강조하는 삼삼산우회, 산우들은 이날도 이 슬로건을 외치며 오전 10시30분 산행에 나섰고 1시간30분 만에 지리산(397.6m)에 닿아 가쁜 숨을 고르며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갖가지 반찬들로 차려진 점심식사는 꿀맛이었다.

쉬면서 내려다본 사랑도의 풍광은 환상의 절경체처럼 느껴졌다.

발 아래 펼쳐진 그림 같은 작

수담나누고 삼삼산 파티 즐기고...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쌍석회 바둑대회에서 기사들이 진지하게 수담을 나누고 있다.

쌍석회 올해 2차 바둑대회 우승 노영일·최영수 차지 서울 김인호 참석 화기에애

쌍석회(제11회기우회) 올해 제2차 바둑대회가 지난 4월24일 오후 1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30여명의 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A, B조로 나뉘어 기량을 겨뤘다. 신대수 쌍석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A조는 우승 노영일·준우승 김인호 동문, B조는 우승 최영수·준우승 신대수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입상자에게는 값진 부상이,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전달됐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서울의 김인호 동문이 우정 참가, 대회 분위기를 한결 고조되었다.

돼지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여흥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막을 내렸는데 모두들 작별을 아쉬워했다. 이날 단합회비(30만

원)는 신 회장이 부담했다.

신임이사 8명 '신고식' 재경14회 임시이사회 개최 조규향 직전회장 등 감사패

제14회동기회는 지난 4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나무골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김영치 회장은 이날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주재, 조규향 직전회장과 오태홍 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인환 동문 등 신임이사 8명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태영 동문은 신준호 명예회장 등 18명의 고참(?)들에게 신고식을 치렀다.

이사회는 남기우 동문을 감사에, 조정현 직전감사를 이사로 각각 선임키로 의결했다. 김 회장은 이날 모든 경비를 부담했다.



선착장 앞에서 기념촬영. 왼쪽 뒤로부터 미현님 김동현 정옥님 추현님 미현님 이윤조 민병현 윤태용 미혜님 최영남 은혜님 김법영 정종훈 동문.

은 섬들,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암초들, 모래들, 암벽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높지 않은 산들이 절경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조화미와 아름다움

을 뽐내기에 바빴다.

하산은 오후 1시부터 자녀를 동반한 허약한(?)팀을 먼저 내려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2시간30분 동안 불모산(일명 달바위 399m-13:40)에서 옥녀봉(261m-15:10)~유스호스텔(16:10)까지 발품을 팔았다.

로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코스들, 거의 기다시피 올라간 능선들, 철사다리와 나무사다리 등 다양한 코스로 여는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산행이었다.

목욕 후 자연산 활어회로 단합회를 즐겼고, 오후 6시10분 막배를 탔다.

Billboard

전화 (051) 245-7551~3
팩스 (051) 245-7550

친구들 보고파 불원천리 부산에

경열회 5명 생선회에 심취

부산 친구들이 너무 보고파(?) 경열회 김상태 김시열 서진홍 정인호 이근태 동문이 고속전철을 타고 불원천리 부산 나들이를 해 소원을 풀었다.

지난 4월 26일 오후 부산역에 도착한 이들은 광장에서 부산의 김종원 서정철 김용규 박종문 오강욱 동문과 재회, 서예가 박 동문이 쓴 '祝在京慶十會同門釜山訪問' 휘호를 앞세워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일행은 이어 역 가까운 곳에 있는 동기회 사무실을



부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고속전철을 타고 불원천리 부산에 온 경열회 동문들이 마중 나온 부산 친구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환영 플래카드를 앞세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걸어서 방문, 벽에 걸린 50년 전 중고 시절 까까머리 사진들을 보고 감회가 짙었다. 자리를 옮겨 대한민국 '최고의 다리'로 회자되고 있는 광안대교를 드라이브한 후 광안리횡촌에

서 '펄떡펄떡 뛰는' 생선회와 소주로 우정을 심고 회포를 풀었다. 한편 서울 친구들은 오강욱 동문이 스폰서가 되는 바람에 보답으로 동기회 사무실에 커피값을 내놓고 상경했다.

이상택(의)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5개 과목 진료 샘여성병원 개원



이상택 동문(13회·효산의료재단 이사장·재경동창회 고문)은 지난 4월 1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에서 지역 기관장과 의료계 인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샘여성병원 개원식(사진)을 주재했다. 샘여성병원(지하 2층·지상 7층·80병상 규모)은 산부인과·가정의학과·소아과·마취과·한방 등 5개 과

목을 진료하고, 샘산후조리원과 임신상담센터 등 2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옛 안양병원·안양한방병원)은 1967년 안양의원을 모태로 발전을 거듭, 1972년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도약했고, 지난 3월 초 '샘'이라는 새 이름 명명과 새로운 CI선포식을 가졌다. 본부동창회 부회장과 재경 회장을 역임한 이 동문이 총괄하는 샘안양병원·샘여성병원·샘한방병원의 의료원장은 부인 황영희씨(산부인과 전문의)가 맡고 있다.

경열회 친목회별 모임 성황

경열회(제10회재경회) 5월 수업 시 간표에 따르면, 분당토요회(회장 서

진홍)는 지난 15일 오후 6시 분당 기왕집순두부에서(홀수달 부부동반), 안산화요회(회장 박철민)는 11일 오후 12시 30분 안산 중앙역 다릿목추어탕 집에서 소죽잔을 나눴다. 동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8일 북한산에 올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진달래꽃에 반했고(오는 23일 청계산 등정), 강북화요회(회장 강재환)는 4일 오후 12시 30분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정담을 나눴다.

골프 4월대회 우승 김상태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최형백)와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각각 20일·22일 월례대회를 치른다. 강남화요회(회장 김해룡)는 오는 25일 오후 12시 30분 서초 기왕집순두

재경 경팔회 봄나들이 '활짝'

재경경팔회(회장 이규환) 클럽별 봄나들이가 진달래 꽃처럼 활짝 피었다.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5월 15일 10명이 수락산을 올랐고, 4월에는 주말마다 관악산(24일·10명)·북한산 진달래능선(17일·11명)·수락산(10일·5명)·도봉산(3일·9명)을 차례로 도전, '노병'의 건재를 과시했다.

챔피언십 율태영·장은아 부부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우원)는 지난 5월 6일 안성 CC에서 '03~04년 챔피언 결정전'을 겸한 제129회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챔피언이 된 율태영·장은아 커플은 남녀부를 '쌍쌍이' 했다. 남자부 우승 추경석(87타·-3)·준우승 홍기성·3등 박지병·니어리스트상 정진수·행운상 노재복 동문.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5월 1일 오후 1시 30분 한일기원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손대근 신현주 율태영 이종수 강성태 이창근 동문(도착순)이 열전을 벌였다. 우승 이창근·준우승 손대근 동문.

부에서 점심을 먹으며 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7일 정오 자유CC에서 회장배 쟁탈 정기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경록회는 지난 4월 22일 정오 같은 장소에서 4월대회를 열었다. 우승 김상태·메달리스트 김창덕·준우승 이해수·3위 이승락·니어리스트 장기상 동문. 특히 최형백 동문은 3월대회 우승으로 금일봉을 쾌척했다.

14K 클럽별 활동 재미 '쏠쏠'

제14회재경동기회(약칭 14K)의 바둑·등산·골프·당구회 등 클럽별 봄철 친선행사가 열기를 뽐내고 있다.

낙석회, 경부친선대회 열기로

바둑모임 낙석회(회장 최병태)는 지난 4월 11일 동기회관에서 최 회장과 프로8단인 백홍수 기사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대국을 벌였고, 부산의 낙석회와 친선대회를 열기로 했다. 산우회(회장 박 진)는 같은 달 11일 북한산에서 열린 재경

용마산악회 시산제에 28명이 참석, 참가2위상(1위 제17회)을 받았다. 하산 후 호프집에서 노래 결집인 뒤풀이 만끽.

우승 김영치·부부대회 10쌍 참가

일사골프회(회장 허 증)는 지난 3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개최했다. 우승 김영치·메달리스트 서정환·니어리스트 김도선 동문 차지. 부부골프모임인 경초회(회장 신수범)는 지난 4월 19일 경기 오산 플라자 CC에서 10쌍의 부부가 라운딩을 즐겼다.

제15회 화친회 임병철 회장 취임

제15회동기회 의약회(회장 손부홍)는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에서, 화친회(회장 임병철)와 이화회(회장 박용)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 각각 유성횃집(거제동)과 송원한정식집에서, 가람회(회장 임영길)는 같은 달 12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서 부부동반(18명)으로 월례회를 개최했다. 한편 화친회는 월례회에서 임 회장을 취임시켰다.

삼육회, 김해 김용남 초청으로 야유회

또 삼육회(회장 이승남)는 지난 4월 9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용남 동문의 초청으로 1박2일 야유회를 장유 초원의 집(이철웅 동문 운영)에서 열었다. 7명이 참가한 모임은 이 회장과 김용남·강민조 동문이 각각 특찬금 10만원·20만원·8만

원을 쾌척해 도움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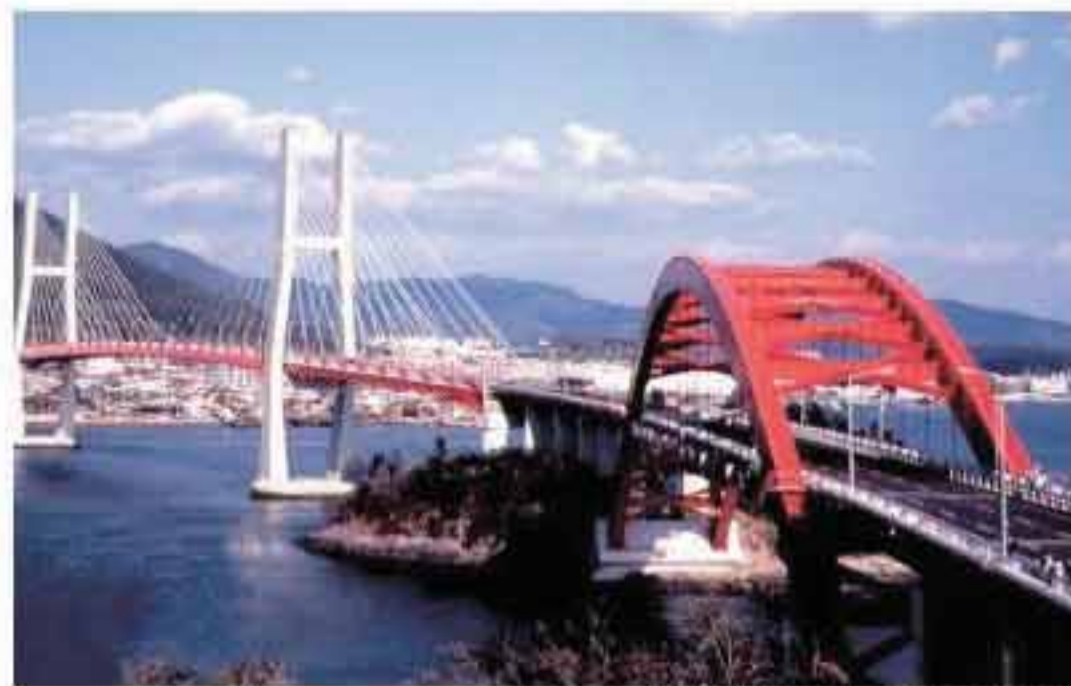
이구회 골프우승 서울 서봉교·부산 이성열

제29회동기회 서울 골프모임 이구회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우정힐스CC에서 15명(4팀)이 참가, 제68차 정례대회를 열었다. 이날 우승 서봉교(85타)·메달리스트 박성재 그랜드 슬램 장담 물거품)·준우승 이승우(핸디 조정없이 연속 준우승으로 벌금 5만원)·근접상 김태희(1.4m)·장타상 김기수(좌측으로 휘는 공 수정에 노력 중)·행운상 김성문 동문(본인 명예 위해 스코어 밝히지 않음)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부산의 이구회는 같은 달 8일 오전 부산아시아드CC에서 정례대회를 열었다. 이날 우승 이성열·준우승 김석운·행운상 안청홍·오세용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김대욱 회장은 벨리코스 9번홀에서 이글을 해 이글패를 만들어야 하는 총무의 속을 쓰리게 했다.

보성 녹차밭~100만평 철쭉 일림산~낙안읍성

사이룩회 환상의 남도 드라이브

사이룩회(제26회동기회 부산 사하구 동문 모임) 용마가족 15명이 지난 4월 25일 전남 보성 녹차밭~100만평 철쭉 일림산~낙안읍성 민속마을~삼천포 코스의 관광여행을 즐겼다. 일행은 이날 오전 6시 하단오거리 근처 세양병원 앞에서 출발, 5시간을 달려 드라마나 CF 촬영지로 이름난 전남 보성의 녹차밭에 닿아 실컷 구경을 했다. 이어 발길을 해수욕장으로 소문난 울포해변으로 옮겨 횃집에서 키조개와 낙지를 듬뿍 넣은 연포탕에 바지락회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관광은 100만평 철쭉을 자랑하는 일림산과 용추폭포, 낙안읍성 민속마을, 남해~삼천포 연육교로 이어졌고 삼천포횃집에서 멍개 해삼 개발 소라 등으로 장만한 모듬패류를 펼쳐 놓고 단합회를 벌였다.



삼천포와 남해를 잇는 연육교

다(부산 도착 밤 11시45분).

이철산우회 02~03년 산행일지 발표 24개 산에 연인원 370명 등정

지난 4월 현재 제162차 산행대회를 치른 이철산우

회(회장 강봉호)의 02~03년 실적이 정리·발표됐다.

산우회 이종찬 총무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간 정리한 산행 일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오른 목적산은 경남 연안의 고현산을 비롯해 모두 24개 산이었고, 연인원 370명(경부합동산행 2차례 94명 포함)이 참가했다.

이 중 1박2일 일정은 단 한 차례로, 지난 02년 6월 22~23일 경북 울진의 백암은천~백암산 코스이다.

또 가장 많이 오른 산은 4차례를 기록한 경남 양산 근교 천성산이고, 부산 시내 산으로는 한 차례인 엄광산~승학산이다.

제일 많이 산을 오른 동문은 20차례의 강봉호이고, 그 다음으로 15차례의 윤지환과 14차례의 이종찬 강영건 순. 한 차례 기록은 이태주 김현수 정민화 문두찬 양태중 김형태 동문이다.

삼구회 마산·창원·진해 친구들

봄날 링데뷔 '청춘 예찬'

제39회동기회 마창진회(마산·창원·진해지역 동문 구성) 봄철 모임이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경남 창원시내 경남도청 근처 해운대갈비집에서 열렸다. 박인석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12명이 참석, 내년 봄 홈커밍데이행사를 위한 예산 모금을 5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등 현안문제를 의결했다. 일행은 뒤풀이를 라이브주점에서 벌였다.

홈커밍데이 축제 '활짝'

신록 짙은 모교의 교정과 세계적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관광특구 해운대는 용마가족들의 홈커밍데이 축제로 채색됐다. 올해는 제8, 18, 28, 38회동기회가 각각 50, 40, 30, 20년 만에 중심의 그루터기에 둘러앉아 시간여행을 펼쳤다. 신선한 만남은 우정과 추억, 소망과 감동으로 수놓아졌다.

40년 만에 동심 꽃피운 '18번지 친구들'

제18회동기회

제18회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 팡파르가 지난 4월24일 오후 6시40분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앞 조선비치호텔 대연회실에서 울려 퍼졌다.

대형 스크린에서 지난 20, 30주년 행사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가까머리 중·고시절 사진들이 번갈아 방영되자 장내는 박수와 폭소와 환성 속에 추억여행을 했다.

오후 7시 김길제·강정일 부산·서울 회장이 공동주재한 제1부 기념식이 막을 열었다. 부산·서울을 비롯한 전국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해외에서 모인 250여명(부부 80여쌍 포함)이 오색 조명 불빛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김길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이 흐르다보니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된 나이가 됐다"며 "성숙한 지혜로써 값진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행권 본부회장(9회·협성운수 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부산의 박도형·오재동 동문에게 공로패를, 부산의 오수명·서울의 오세복 동문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서울의 김귀연·부산의 이성일·울산의 양동건 동문이 각각 받았다.

이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허태열·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인 최재범 동문의 인사, 총선에서 재선한 정형근 동문 부인 소개, 서울 회장을 지낸 박현태 동문의 자



40년 전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아로새겨진 경남고를 방문한 '18번지 친구들'이 원형교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부 80여쌍 포함 250여명 신선한 만남 관광특구 해운대서 '감동의 추억여행' 모교발전기금 전달·교정 돌며 감회속에

작시 '우리' 낭송, 축배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의 나정현·서울의 차형권 동문이 더블MC를 맡은 제2부 버라이어티쇼는 김윤훈(미국)·배동호(캐나다)·장길남(브라질) 트리오가 '클레멘타인'으로 테이프를 끊었고, 부산·서울 대표가수(?)들이 번갈아 열창했다. 특히

서울의 김지호 동문은 미국의 장형석 동문이 작곡한 '친구 이야기'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제는 동문·가족들이 일제히 '만남(노사연)'을 합창한 후 '친구여(조용필)'가 백 뮤직으로 깔리는 가운데 원을 그리며 돌면서 악수를 나눔으로써 대미를 장식, 밤11시쯤 폐막했다. 뒤풀이는 포장마차를 비롯, 노래방 등에서 밤새도록 끼리끼리 다시 모여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뒤편 25일 오전 9시 일행은 일식집 황금어장에서 전복죽으로 속을 풀었고, 이어 서울 용마가족들은 시내 관광을 한 후 오후 3시 고속열차편으로 상경했다. 한편 전날 24일 오후 부산역에 도착한 서울 용마가족 80여명(부인 포함)과 마중 나온 부산의 김길제 회장 등 20여명은 버스편으로 경남중에 들려 44년 전에 공부했던 교실을 둘러본 뒤 김철곤 교장(16회)에게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일행은 경남고를 방문, 원형교사와 교정 등을 거닐면서 추억을 회상했고, 권명미 교장에게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원형교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행사장으로 향하던 일행은 중앙공원에 잠시 들려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낮익은 부산 앞바다와 시가지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

"40주년 때도 올끼재?" "하모, 올끼다!"

제28회동기회

지난 4월24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메리어트호텔 대연회장.

제28회동기회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축제가 막을 열자 장내는 이원철·황인엽 부산·서울 회장과 임재홍 행사준비위원장 등을 비롯한 전국의 동문·가족 300여명, 이종희 손충익 등 은사 26명,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 같은 해 졸업한 부여고·경여고 임원 등의 박수갈채 속에 '회상의 바다'를 이뤘다.

제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은사 기념품 증정, 타계한 은사와 친구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경과보고, 동기회장 인사, 축배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 노영현).

이원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성공적 행사는 10년 후 아름다운 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각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정의 탑을 공공히 쌓자"고 말했다.

정행권 본부회장은 격려사에서 "제28회는 우리 동창회의 중추적 위치에 있다"며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김치운 임재홍 이만수 동문에게 공로패를, 권기택 정영주 동문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이승보 권수원 노태욱 동문이 받았다.



부산 해운대 메리어트호텔 연회실에서 열린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축제를 즐기고 있는 제28회동기회 용마가족들.

은사·제자·가족 '특급쇼' 공동 주인공으로 김치운 등 7명 공로-감사패·금배지 행운 부산역서 한쪽 구두 벗어 들고 "후라 경고!"

제2부 여흥한마당은 PSB(부산방송) 이사인 이만수 동문의 특별기획에 따라 'TV쇼' 수준으로 진행됐다. 동문·가족들의 끼가 물씬거린 열창경연과 장기자랑에다 끝까지 제자들과 어울리며 노익장을 과시한 이종희·손충익 두 은사의 노래와 춤이 뒤섞여 열광의 파노라마를

이뤘다(사회 김명영·정인식). 밤 11시쯤 끝난 공식행사 후 '술꾼'들은 해운대 등지를 방랑(?)하면서 새벽녘까지 술독에 빠졌다. 축제 둘째날인 25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내관광에 들어가 먼저 영도 한국해양대와 태종대를 둘러봤고, 경남고와 경남중 (야구 배트 2자루 기증)을 방문, 학창시절을 회상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오후 12시40분 자갈치시장의 신동아회센터 3층의 15호 횃집을 통째로 차지하고 생선회파티를 2시간여 벌였다. 이어 용두산공원으로 올라 전망대에서 부산경관을 실컷 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켜켜이 쌓인 듯한 아쉬움 속에 술렁였다.

'영원한 응원부장'인 이수사의 제안에 따라 은사(이종희)와 부인들까지 오른쪽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후라 경고!'를 삼창하는 촌극(?)을 연출했고, 이 동문이 이어 "40주년 때 다시 올끼재?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낼끼재?"라고 외치자 모두들 "하모, 올끼다! 하모, 건강하게 지낼끼다!"며 응수해 주위를 한바탕 웃겼다. 고속전철로 서울 친구들을 보낸 부산의 동문·가족 30여명은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엄호성 동문과 부인이 합석한 가운데 인근 생맥주집에서 뒤풀이를 하고 헤어졌다.

20년 만의 모교 방문에 감격의 박수

제38회동기회

제38회동기회는 졸업 20년 만인 지난 5월1일 오후 3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홈커밍데이축제 제1부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형석 동기회장이 주재한 기념식은 주상우(당시 교장)·이희문 은사(당시 교감)를 비롯한 11명의 은사들과 고 김완호 은사의 사모님, 부산·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동문·가족, 권명미 교장, 본부동창회 정행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김형석 사무국장(16회)·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경과보고·은사 기념품 증정·학교장 환영사·회장 인사·본부회장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사회 윤경만).

김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우리들을 울곧게 가르쳐주신 훌륭한 은사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니 감개무량하다"며 "우리 동문 각자는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역량을 배양하며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행권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조석태(전 회장)·김문철 동문(현 총무)에게 공로패를, 우종완·이종명 동문에게 금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권명미 교장은 이원진 서구일 서경형 주영록 장지수 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졸업 20년 만에 모교 경남고를 찾아온 제38회 동문들이 은사들을 모신 가운데 원형교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랑스런 경고인' 새긴 교통카드 선물 초청가수 열창 속에 막춤경연 절정 이뤄 재학 때 '효자' 부모 모시고 나와 박수세례

김형석 회장은 모교 재학생(1138명)과 교직원(94)에게 '자랑스런 경고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신형 마이비교통카드(1만원)를, 권 교장에게는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공식행사를 끝낸 동문들은 원형교사 앞에서 은사들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고, 반별로는 동문·가족·은사가

주인공이 돼 기념촬영을 하고 해운대로 발길을 옮겼다. 오후 6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실에서 열린 제2부 추억여행과 만찬은 감회어린 순간들이었다. 반별로 자리한 동문·가족 등은 '청운의 꿈'을 한껏 노래했던 모교의 전경들이 동영상으로 방영되자 감회 속에 박수를 터뜨렸고 시종 묻어뒀던 지난 이야기들을 꽃피웠다. 제3부 버라이어티쇼는 초청가수 김혜연의 경쾌한 노래와 백댄서들의 화려한 춤, 게임과 장기자랑, 동문·가족들의 막춤경연 등이 열광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4반 동문들이 은사 (성순환-현 사직고 교장)에게 큰절을 올리고, 학창시절 효자상을 받았던 이원진 동문이 이날도 부모님을 모시고 참석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날 밤 10시쯤 대단원의 막이 닫혔으나 아쉬움이 많은 동문들은 반별로 짝지어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술과 노래로 회포를 풀었으며 서로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도우며 지내자"고 약속을 나눴다. 행사 둘째날인 2일 오전 서울의 용마가족들은 부산 친구들의 안내를 받으며 광안대교를 비롯한 명승지를 관광했고 점심 때는 자갈치시장 생선회센터에서 '석별의 오찬'을 나누는 후 고속전철편으로 귀가했다.

동문이 펴낸 새 책

<빛 이야기>

김학수 (11회) 지음

김학수 동문(11회·전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사진)은 최근 '빛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을까'를 체계화시킨 <빛 이야기>를 펴냈다(부산대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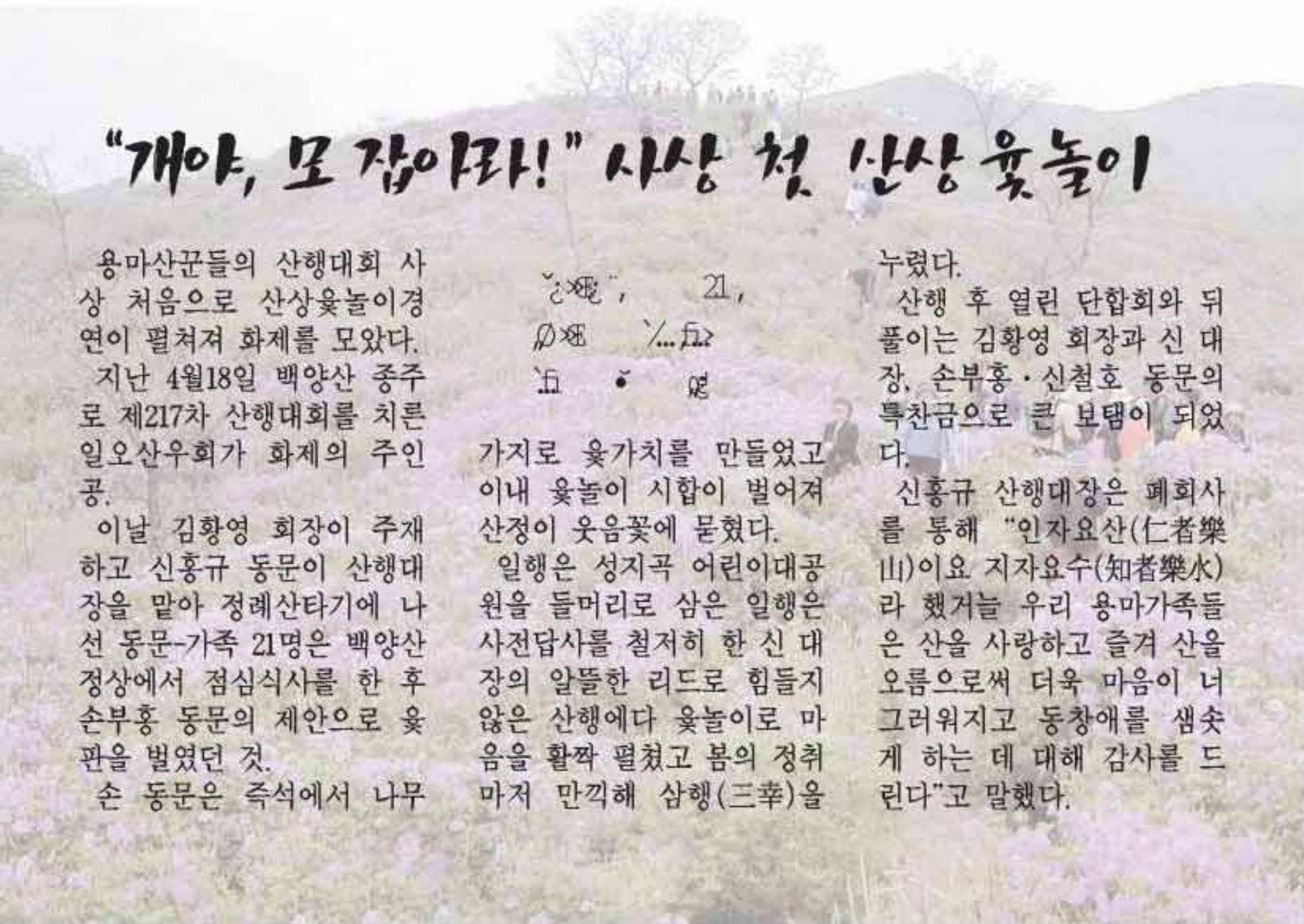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학사(光學史)인 <빛 이야기>는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시선학'을 비롯해 아랍의 위대한 광학자 알하이삼과 르네상스기의 광학·굴절광학·회절간섭 복굴절이 소개된 17세기 말의 40년, 광속 측정, 전기학, 자기학, 전자기학 등을 11개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빛이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놓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없이 고민했고, 끝내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 에테르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빛의 속도는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 등 빛의 역사와 빛의 신비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철학 문학 미술 등 주변 학문을 총동원해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빛 이야기>는 천둥이 칠 때 빛이 먼저 보이고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것을 관찰하던 그리스의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는 비록 소리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유한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정받기까지 16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역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 동문은 "빛에 대한 탐구는 모든 지성사(知性史)와 얽혀있고 역사 철학 예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보해 왔다"며 "<빛 이야기>를 펴내기 위해 미국의 대학 도서관을 이잡듯 뒤졌고, 세계 각국에 남아있는 빛의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찾기 위해 유럽 등 세계 각국을 수없이 쏘다녔다"고 말했다.



"개야, 모 잡아라!" 시상 첫 산상 웃놀이

용마산꾼들의 산행대회 시상 처음으로 산상웃놀이경연이 펼쳐져 화제를 모았다.

지난 4월18일 백양산 중주로 제217차 산행대회를 치른 일오산우회가 화제의 주인공.

이날 김황영 회장이 주재하고 신흥규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아 정례산타기에 나선 동문-가족 21명은 백양산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손부홍 동문의 제안으로 웃판을 벌였던 것.

손 동문은 즉석에서 나무

가지로 웃가치를 만들었고 이내 웃놀이 시합이 벌어져 산정이 웃음꽃에 물었다.

일행은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을 들머리로 삼은 일행은 사전답사를 철저히 한 신대장의 알뜰한 리드로 힘들지 않은 산행에다 웃놀이로 마음을 활짝 펼쳤고 봄의 정취마저 만끽해 삼행(三幸)을

누렸다.

산행 후 열린 단합회와 뒤풀이는 김황영 회장과 신대장, 손부홍·신철호 동문의 특찬금으로 큰 보탬이 되었다.

신흥규 산행대장은 폐회사를 통해 "인자요산(仁者樂山)이요 지자요수(知者樂水)라 했거늘 우리 용마가족들은 산을 사랑하고 즐겨 산을 오름으로써 더욱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동창애를 샘솟게 하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천산 절경에 우리만 몰랐네 탄식연발

일육산악회 '부부동반 43명' 등장... 신임회장 손송방

일육산악회(제17회)는 지난 4월 17~18일 전북 순창 근교 강천산에서 정기총회 기념 관광산행대회를 열었다. 이경일 회장이 인솔하고 서태복 산행대장이 산길을 리드한 이번 행사에는 부부동반 43명(대구 채경일 부부 포함)이 참가, 친교를 다지고 심신을 단련했다.

18일 오전 8시 산행에 나선 일행 중 제1진은 서태복 대장의 리드로 정상을 완주했고, 여장부 오정혜씨(김길정 부인)가 이끈 제2진은 구름다리~전망대 코스를 밟았다.

하산 후 이 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총회는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개선, 새 회장에 손송방(동

성한의원장)·부회장에 김미륵·감사에 정우광 동문을 각각 선임했고 최정일 사무국장과 서태복 산행대장을 유임시켰다. 이

어 단합회가 열려 술과 노래와 춤으로 피로를 풀었다. 행사를 위해 정영일·김정균 전·현임 동기회장 등 15명이 특찬금을 전달, 뜻있게 쓰여졌다.

▽ 일육산악회 동문·가족들이 새로 선임된 손송방 회장 (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함께 풍광 빼어난 전북 순창의 강천산 등정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6회동기회(회장 추창구)는 지난 4월18일 경남 밀양 근교 가지산에서 제116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춘섭 26악(산악회 통상명칭) 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에는 동문 12명(박동기 박성

제116차 산행 가지산서 이륙회 가족동반 15명 참가
규 서경호 유봉식 이규생 이영덕 이춘섭 장경재 조태웅 최명해 최수일 하승봉)과 부인 3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정상을 밟은 일행은 일제히

"야호!"를 연창한 후 이 회장이 제공한 막걸리한 잔치를 마시고 산상뷔페잔치를 벌였다. 부산으로 돌아와서는 범어사 절골에 있는 북한음식(박장현 동문 운영)에서 해단식을 치렀다.



멧돼지 바베큐 맛에 흠뻑 빠진 제31회동기회 서부회 봄야유회.

멧돼지바베큐 들놀이 삼일서부회 용마가족 신바람

제31회동기회 서부회 봄야유회가 지난 4월11일 경남 김해시 근교 산해정에서 열렸다.

정정남 서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야유회는 특별초대된 동기회 남철우 회장과 안중수 총무를 비롯한 동문 16명과 가족 10명 등 모두 26명이 참석, 멧돼지 바베큐로 흥겨움을 나눴다.

마산창원지역

- 안영규(12회)=마산노인병원 원장. 마산 회원동 산복도로. 055-242-7582
- 김광웅(18회)=회원병원 원장. 창원 반지동 케이프타운 2층. 055-237-7733
- 김만근(18회)=세향전자(주) 대표이사.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055-251-9713
- 이인철(19회)=창원의료기 대표. 창원 내동상가 1층. 055-284-5656
- 곽상인(23회)=곽 피부·비뇨기 과의원 원장. 창원 삼일상가 2층. 055-284-4378
- 박영빈(27회)=경남은행 부행장. 055-290-8003

- 김명조(36회)=금소림 민속관(민속주점) 대표. 창원 용호동 레이크필스 404호. 055-274-8070
- 류호섭(38회)=SK텔레콤 마산 남부대리점 대표. 마산 합성동 보보스타운 맞은편. 055-255-5011
- 김의석(31회)=현대치과 원장. 마산 신세계백화점 옆. 055-241-7753
- 김영훈(36회)=현대치과. 마산 신세계백화점 옆. 055-241-7753
- 이용한(37회)=현대치과. 마산 신세계백화점 옆. 055-241-7753

제5회
金洙鉉=동기회 총무. 4월25일 목화예식장 2층 성실에서 차녀

어디서 무엇을

- 미성(보경)양 결혼
- 제7회
李昌範=4월2일 모친 별세
- 제8회
金東淳=5월1일 대전 목동천주교회에서 아들 민수군 결혼
- 제9회
權喆根=4월29일 지병인 간경화

- 로 별세
林根文=5월30일 오후 1시30분 새마당예식장 3층 청실에 차남 재영군 결혼
尹性泰=5월16일 진안성당(전남 진안)에서 딸 정희양 결혼
- 제10회
全乘翼=(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8 롯데캐슬아파트 104동 701호. 051-761-2387
金炫喆=(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6 동원테크빌리지 107동 305호. 051-747-3881
安照萬=(자택이사)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101-5. 055-383-5303
洪起錫=4월3일 수정동 성결교

- 회에서 장남 결혼
安柱憲=4월25일 해운대 마린센터 웨딩홀에서 딸 결혼
朴光春=5월16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차남 결혼
沈英煥=5월21일 63빌딩 웨딩홀에서 아들 결혼

제11회
朴燾太=제17대 총선에서 경남 남해 하동지역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 02-788-2103. 055-864-2406
金容滿=4월25일 부산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장녀 은희양 결혼. (자택)부산시 해운대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국내외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구 중1동 1763 동일아파트 103동 1402호. 051-746-5272, 011-9519-5272
金鍾述=5월1일 서울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예수성심성당에서 장남 대환군 결혼. (자택)부산시 북구 구포1동 716-1 (9/3). 051-333-1328, 019-578-6057
朴一洙=4월21일 별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863 영진그린힐아파트 104동 1402호. 018-629-8858
廉漢鎬=(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08-1 민락 대우푸르지오아파트 102동 2302호. 051-761-1177, 016-310-0860
金在煥=(전화번호변경)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6-30 LG메트로 시티 124동 404호. 051-612-8027, 010-3133-8027
柳興洙=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56-26 지창빌딩 6층. 02-578-0909, 팩스 02-578-0528(전화겸용)
安康泰=대전조선(주) 대표이사. 국민생활체육 전국남시연합회. 051-412-0051

제 12 회

金宗瑞=4월5일 별세
金石用=(자택이사)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5-2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709동 802호. 055-332-3280, 011-9237-3290
朴保國=(주)은성사 대표이사. 051-265-8611. <http://silstar.co.kr>

제 14 회

李宗守=(주)동아운송 공무감독. 064-722-5275, 017-548-6259, 3월 8일 모친 별세
尹龍男=고현 중앙초등학교 교장. 055-638-1405, 011-9501-9178, 3월28일 거제 고현에서 차녀 결혼
金炳徹=울산중학교 교사. 052-296-7704. (자택)051-513-6055, 4월24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남

제 32 회

朴鍾佑=부산일보 광고국. 051-

결혼
金容浩=(주)통영예선 전무이사. 02-2168-3288, 011-580-6207, 2월 15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삼남 결혼
조돈만=2월15일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장남 결혼. (자택)052-267-7600, 011-410-7607
朴清吉=한가족의원 원장. 051-246-2880, (자택)051-754-2850, 5월2일 부산예식장에서 삼남 결혼
具滋信=(주)쿠쿠전자 회장. 055-380-0700, 5월8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차남 결혼
金勇候=4월10일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차남 세현군 결혼
金昌孝=4월24일 서초동 천년뷰페웨딩홀에서 삼녀 민정양 결혼
金榮雨=4월27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딸 은성양 결혼
崔炳徹=5월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서라벌에서 장녀 민경양 결혼
黃弘錫=5월1일 서초동 서초웨딩홀에서 장남 원철군 결혼
尹英鉉=영케이칼(주) 대표이사. 055-365-1361. <http://www.youngchemical.co.kr>

제 15 회

林相澤=4월30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장녀 연주양 결혼
李海龍=5월9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장녀 은실양 결혼
黃重夫=(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477-4 동창연립 9동 201호. 051-202-9750, 017-546-1565
徐正旭=(핸드폰번호변경)010-8851-3628

제 16 회

姜昃必=(주)명천 대표이사. 4월 9일 부친 별세
李成男=4월24일 차남 병국군 결혼시키고 결혼터
劉正豪=재미, 시카고, 의사. 일 시 귀국하여 동기생들에게 만찬 베풀다
권인수=(자택이사)부산시 수영

296-5644
吳珉一=(개업)케이씨씨 상사.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웰비치 오피스텔 1111호. 051-742-2746, 팩스 051-742-2748, 017-558-1458
趙永基=4월 9일 모친 별세. 011-9320-2840
金雲龍=(개업)거평 법무사 합동사무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타운 1003호. 051-501-7422, 팩스 051-501-8054
鄭哲守=하나병원 원장.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80. 051-266-2600

구 광안2동 150-67. 051-752-5721
曹吉宇=부산시의회의장. 동기생 의회 초청하여 기념주화 선물 및 저녁회식 제공
盧祥鉉=청십자의원 원장. (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동원보라아파트 102동 603호. 051-622-3676
洪龍燦=우성해운(주) 대표이사 겸 한국항만공사 이사. 동기회 사무실 방문, 22명 동기생 초대하여 명송초밥에서 만찬

제 18 회

羅正憲=5월1일 오전 11시 수영로교회 1층 평강홀에서 장녀 유경양 결혼
愼俊紀=5월2일 오후 1시 서울시 성북구 중암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1층에서 장녀 정아양 결혼
韓光洙=(개업)좋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203호(서울지검앞) 02-3477-1177, 팩스: 02-3477-2306, 이메일: hks0087@empal.com
張壽一=(주)신성그래픽 대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10. 051-865-2088, 팩스 051-861-3540
金吉帝=동기회 회장. (주)MSC 회장. 양산시 웅상면 소주리 439-10, 055-389-1001, 팩스 055-366-0478
南斗鎭=금강예식장 대표. 미남로 터리. 051-554-7500, 011-599-3388

제 19 회

裴武三=한국 민속 연 연구소 소장. 051-554-6475
石武官=5월22일 오후 1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딸 민주양 결혼

제 20 회

沈斗壽=(주)에스에스대청이코노 대표이사. 4월24일 해운대

제 33 회

南勝勳=대전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월20일 모친 별세

제 34 회

金斗燮=김내과의원 내과전문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84-5 경동코아빌딩 3층 308호. 051-703-7010
李相都=코끼리내과 원장. 남포동 연흥빌딩 4~5층(농협 건너편). 051-231-0065~7
李性樺=동명농원 대표. 016-248-0948, E-mail: ksy9915@hanmir.com
李受衡=(주)미진C&C 대표이사. 055-385-2155

제 38 회

방문식=(주)세광네트웍 대표.

조선비치호텔에서 아들 효관군 결혼. 051-466-8033
朴長大=051-891-1473, 5월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웨딩홀에서 딸 희연양 결혼
朴玉陽=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장. 051-552-3727
張炳鎬=국제신문사 문화사업국장. 051-500-5220
朴基祥=(취임)한국복합물류(주) 양산터미널 지점장. 055-371-2005
金相權=하남초등학교 교감. 051-208-5925
鄭昇昌=유림건축사사무소 대표. 051-246-0276
金照東=세무회계사. 5월15일 목화예식장에서 아들 양수군 결혼. 051-515-7231
이종열=5월10일 모친 별세. 051-291-1603
陳慶一=경수회 회장. (주)영신 대표이사. 055-277-3334, 팩스 055-277-7471. <http://www.iysc.co.kr>

제 21 회

최낙환=5월22일 오후 2시 파크웨딩홀 베르사이유룸(중앙동 통운빌딩 17층)에서 장녀 연주양
김진모=4월4일 모친 별세

제 24 회

柳洪碩=F&F(주) 대표이사. <http://www.fnfc.co.kr>.
鄭驥春=감나무집 대표. 부산시 연제구 거제4동 676-109, 051-505-5059, 016-866-2461

제 25 회

盧台鎬=(개업)명문약국. 사하구 괴정동 서화의원 옆
李祥植=(개업)Missha 화장품점. 부산역 애경백화점 내
金鍾賢=(개업)Missha 화장품점. 양산시 중앙동 시외버스중점 옆

제 35 회

丁允省=동기회 회장. 협성운수(주) 부산가스개발(주) 대표이사. 부산 사하구 장림1동 325-66, 051-205-8871~3
孫壽範=동기회 총무. 용마통상 대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1가 114-4, 051-242-8233, 016-857-4628

제 36 회

金 漢=동기회 회장. 가람법무법인 변호사. 검찰청앞 로윈타워 2층. 051-503-0402

제 38 회

방문식=(주)세광네트웍 대표.

제 26 회

하원규=(개업)르네상스호텔. 부산시 사상구 레퍼동 559-6, 051-312-8581, 019-581-7375
韓碩緣=4월25일 장인 별세. 011-801-5818
朴哲弘=4월26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컴퓨터&전자음악 작곡 발표회 개최
金龍洙=모친 별세. 011-562-9218

제 28 회

정인식=정인갤러리 대표. 017-565-8202, 부인 박광희 화가의 세 번째 작품전을 동기들의 협조속에 성황리에 개최

제 29 회

朴成鎬=(개업)태양공인중개사.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동아슬레시아아파트 주상가 101호. 031-264-2233, 016-9224-6575. <http://www.264-2233.com>(부동산114홈페이지). 이메일: solar4989@yahoo.co.kr
宋熙泰=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011-1760-0037
金台明=4월20일 장모 별세. 011-9011-4546
田鉉秀=(이전개원)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6 웨비리 샤르망 빌딩 401호(웨비리아아파트 입구에 위치). 02-400-2911, 017-620-7729
梁銀哲=(회사)YPS Engineering 대표. (회사전화)1-714-630-2947 (FAX)1-714-630-2948 (자택)12562 nelson st. garden grove, ca 92840 (전화)1-714-636-8157 (핸드폰) 1-714-345-5448, email: eyang@ypseng.com

제 31 회

宋炳錫=4월 26일 부친 별세. 017-716-0727
金鍾根=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4월13일 부친 별세. 011-

051-442-5260. <http://www.sgnet.co.kr>
김문철=동기회 총무. (주)굿모닝렌트카 대표.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86, 051-327-7114

제 39 회

김재만=조이너 신발전문점 대표. 르네시페 4층 4089호. 051-319-9589, 011-884-4190
조재호=조재호소아과 원장. 학장동 월드빌딩 3층. 051-317-4050
문기호=휴방사선과 원장. 부산 당감동 입구. 051-802-3500, 019-532-3815
김남철=쿠바 WHISKY BAR 대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지오피라자 지하. 051-701-0308, 017-567-6158.



지난 4월21일 포스코서관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

재경동창회 올해 제1차 이사회 장학사업 다시 전개키로

재경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4월21일 포스코서관 19층 중식당 피닉스에서 친신일 회장(15회·세종 회장) 주재로 열려 장학사업 재개에 대한 보고에 이어 개정회칙안(회칙 6조2항 '부회장 보강')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장학사업(사진)경우 오는 9월부터 대학 재학 동문과 대학생인 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단 이사 정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신년회와 정기총회를 통합하여 12월이나 다음해 1월에 열자'는 의견은 부결됐고, '회원명부-CD롬 발행'은 집행부에 맡겼다.

기별야구대회 일정(5월16일 개막·입장식 23일-중앙대 안성구장·폐회식 6월 20일-우리은행 도농야구장) 발표에 이어 대진추첨을 했다.

왕년의 '당구스타' 들 모여 클럽 출범 제14회 부산·서울 창립기념경기 펼쳐 자축

제14회동기회는 부산·서울회에 당구클럽이 탄생, 각각 창립기념경기를 펼쳐 자축했다.

부산서는 지난 5월1일 오후 3시 지난 젊은 시절 '당구광'으로 불렸던 박병선 동문 등 12명이 부산 중구 중앙동 물망초식당에서 "왕년의 실력을 재충전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자"며 창립총회를 열어 클럽명을 KBC로 정했다.

이날 총회는 박병선(신홍울테크 회장) 발기인 대표를 초대 회장에, 강원수 동문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고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친선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창립기념당구대회는 시내 중앙동 시티당구장에서 열려 우수 문운용, 준우승 박병선, 3등 강원수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서울회는 지난 4월24일 오후 3시 창립기념경기를 벌였다. 앞서 3월26일 서울회는 동기회관 뒤쪽 식당에서 1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어 오종철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로 선출했다.

배병우 (7회)
노사발전 기여 산업훈장

배병우 동문(7회·미래정경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사진)은 지난 4월30일 산업훈장(동탑)을 받았다. 배 동문의 이번 서훈은 지난 46년간 노동운동가·노동부 공무원·노동법학자 등으로 우리나라 노사협력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배 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경성전기(현 한국전력 전신)에 입사한 이래 경전 및 한전 노조 부위원장·한국노총 법규부장·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부위원장·한국노동법학회장을 지냈다.

특히 국립경상대 법대 교수(노동법)를 비롯, 여러 대학에 출강했다.

“ 소원 풀었네 ”

경부 당구·바둑 즉석 대회 제29회동기회가 당구대 등을 갖춘 숙원의 사랑방을 마련, 감격의 입막식을 가졌다.

지난 4월23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동 사포식당 4층(지하철 초량동역 12번 출구 50m 앞), 권두진 회장(해찬건설 대표이사)은 이날 30여명의 동문(서울의 이승우 엄수돈 서봉교 박성재 포함)과 옥윤석(16회) 경총회 감사, 김병수(22회) 본부사무국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 현판식을 거행한 후 이사회를 겸한 자축연을 주

제29회 동기회 감격의 사랑방 개소식

재했다. 이날 문을 연 사랑방은 권두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 동문들이 기금을 모으는 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마련된 것.

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기회 동문 모두의 성원을

했다. 이날 개소식 겸 이사회는 현판식·경과보고·회장인사·축하 케이크 커팅·축배·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행사에 이어 경부친선 당구·바둑대회 등을 열어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제29회동기회 사랑방 오픈 현판식. 행사를 주관한 권두진 회장(현판 왼쪽)이 옥윤석 경총회 감사(16회·왼쪽 다섯 번째)와 김병수 본부사무국 총무부장(22회·오른쪽 다섯 번째), 동기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결집해 염원하던 사랑방을 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이곳이 화합과 결속을 샘솟게 하는 산실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알차게 운영해 나가자"고 말

한편 이사회는 내년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에 필요한 예산안과 개인별 분담금 규모 등은 5월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모교 개교기념잔치... 체육대회 열어 뜻 기려

경남고 제62회 개교기념식이 지난 4월30일 오전 11시30분 학교 체육관에서 권명미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전임 교직원·재학생·허홍욱 학교운영위원장(19회·부산대 사범대 교수), 정행권 본부동창회장(9회·협성운수 회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권명미 교장의 회고사에 이어 정행권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교는 민족사적 시련기에 창학의 문을 열었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은 선배들이 6.25한국전쟁 등 척박한 교

육환경을 이겨내며 가꾸어 온 보람의 전당"이라며 "우리 후배들은 이 같은 역사를 항상 상기하면서 명문교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서 모교에서 5년간 봉직하다 타교로 전임하는 13명의 선생님에게 기념품을 전달,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다.

기념식 후 재학생들은 학년별 체육대회를 열어 개교잔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한편 경남중은 앞서 같은 달 28일 오후 1시30분 학교 체육관에서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제65회 개교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교직원·전임 교직원·재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개교의 참뜻을 되새겼고, 체육대회를 열어 잔치를 마무리했다.

삼철산우회 동문-가족 62명 불모산~장유계곡 산행

제37회동기회 삼철산악회는 지난 4월11일 경남 김해시 장유읍 근교 불모산에서 가족동반 등산대회를 벌였다.

김중휘 산악회장이 총괄하고 서동욱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산행에는 산악회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2명(부인·자녀 동반 12팀·자녀 동반 5팀·총각 3명)이 참석, 불모산을 원색으로 수놓았다.

이날 일행은 매표소 앞에 모여 왼쪽 들머리로 들어가 산행을 시작, 경사도가 완만한 불모산~장유사~계곡~폭포~매표소로 돌아왔다(소요시간 2시간 50분).

하산한 일행은 김원울 동문이 운영하는 오죽향에서 단합회를 열고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했다.

B I F (보르네오 가구)

부산 북구 전시장

30년 전통

- Wedding
- Living
- Junior
- 사무용

가구

전국일원 본사 직배, 시공, A/S System 운영

1. 제품 구경은 가까운 BIF 대리점 또는 www.bif.co.kr
2. 주문 order는 부산 북구 전시장에서
3. 왜냐구요!
동문님께는 어느 BIF 대리점에서 구할 수 없는 파격적 가격으로 제공되니까요.

대표 **윤우성** (20회)
부산시 북구 덕천동 297-7
TEL : 342-0077 FAX : 343-2070

투자상담 환영

현대공인중개사

**기장, 송정, 일광
장안, 서생, 정관**

대표 : **이동민** (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159-3
(광어골 입구 3거리)
TEL : (051)702-9267